

# ‘아~ 햄스트링’ U대회 접은 양학선 “팬들에 죄송”



### “주사 맞고 뺄 수 있는지 물어볼 정도로 미련 남아 내년 리우올림픽 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기계체조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성화 점화자로 눈길을 끌었던 ‘도마의 신’ 양학선에 다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5일 취재진 앞에 선 양학선의 얼굴은 개회식 대미를 장식했던 영광의 얼굴이 아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그는 목발을 짚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양학선이 5일 오후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U대회에 불참하는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마루경기를 하던 중 오른 허벅지 뒤쪽 부상을 당했다. 선수촌 폴리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은 그는 협력 대학병원인 전남대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고, 햄스트링(허벅지 뒤쪽 근육) 부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양학선의 훈련이 일체 중단됐고 금빛 작지를 노렸던 양학선의 도전도 그렇게 끝이 났다.

박동희 공모 임원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학선과 자리를 한 한양대 가정의학과 교수 박훈기 의무 임원은 “착지 동작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도중 흔히 다치는 부위다. 부상이 심하지 않으면 3주 동안 치료를 받은 뒤 재활치료 받으면 복귀에 문

제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2개월 뒤 열리는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치료 경과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손상 부위의 움직임 최소화하기 위해 붕대와 부목으로 다리를 고정시켜야 했지만 양학선은 쉽게 경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

양학선은 “다치고 나서 의사 진료를 받자마자 진통제 맞을 수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미련이 남았다”며 “의사는 망설임 없이 경기를 더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힘들었던 하루였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회를 위해 함께 땀을 흘렸던 동료, 후배에 대한 미안함이 크다.

양학선은 “팀 주장을 못 하게 되어 후배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 때문에 분위기가 저지지고 무사히 경기 치르길 바란다”고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자신을 응원해준 고향 팬들에 대한 마음도 잊지 않았다.

양학선은 “광주 시민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길 가다가도 ‘화이팅’을 외치는 분들에게 죄송하다. 시합 때마다 좋지 않은 부상 소식이 찾아지는데 앞으로 부상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리우 올림픽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다.

／특별취재단=김여울·백희준기자 wool@

## 정현 “첫 경기라 긴장...이젠 감 잡았어요”

### 테니스 단식 3회전 진출...“웬만한 경험 바탕 성장 중”



테니스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19·상지대)이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통해 한뼘 더 성장한다. 정현이 5일 광주U대회 정상 도전을 시작했다.

정현은 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남자 테니스 단식 2회전 라파엘 햄멜러(스위스)와의 경기에서 2-0(6-4 6-0)으로 승리를 거두고 3회전에 진출했다.

정현은 이번 대회 톱 시드를 받으면서 단식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메이저대회인 웬블던 단식 본선 1회전을 치르고 귀국해 첫 경기를 치른 정현은 1세트에서는 몸이 덜 풀린 듯 고전을 했지만, 2세트부터 기량을 발휘하면서 빠르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남자성과 조를 이룬 복식 경기에서도 2-0(6-0 6-0) 완승을 거뒀다.

정현은 “국내무대에서 시합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대회 첫 경기라 긴장을 했다. 첫 세트를 어렵게 풀었지만 2세트를 하면서 감을 회복했다. 피로감이 있지만 1년 내내 경기를 하는 일정을 반복하니까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고 유니버시아드 첫 일정에 대해 언급했다.

정현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임용규와 함께 28년 만의 남자복식 금메달을 따내며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테니스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인 웬블던 본선 무대까지 밟는 등 많은 이들의 드



거운 관심 속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정현은 “아시안 게임 끝나고서부터 또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 시합에 나가면서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는데 잘된 게 더 많은 것 같다. 웬블던 첫 본선무대를 밟은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찌 됐든 후회 없이 시합을 했고, 처음치고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언급했다.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정현.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정현이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값진 자양분이 될 것이다.

정현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고 나서 많이 성장을 한 것 같다.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웬블던에 이어 단식·복식을 뛰는 일정이)라 체력적인 부담은 있지만 쉬고 다시 뛰고 쉬고 다시 뛰면서 이번 대회 잘 치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 U대회 이모저모



### 선수촌 경찰서비스센터, 네팔 선수단에 물품 전달

광주U대회 선수촌 경찰서비스센터(센터장 김명선 경감)는 5일 오후 2시에 서구 화정동 U대회 선수촌 내 네팔선수단 숙소를 방문해 선수 30여명에게 운동화 등 17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

경찰서비스센터는 최준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선수촌에 머무르는 선수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24시간 상주하는 경찰관 38명의 고생을 위로하기 위해 최근 전달한 격려금 등으로 위문품을 마련했다.

경찰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네팔 선수들이 어렵다는 보도를 접한데다 실제 선수촌에 근무해보니 운동화가 없는 선수도 있고 신발도 낡아 마음이 아팠다”면서 “광주 경찰이 준비한 운동화를 신고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둬 네팔에 희망을 선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팔 양궁대표팀 이종은 감독은 “자국 사정 때문에 선수들 대회 출전이 불투명했으나 광주시가 항공권을 마련해줘 출전할 수 있게 됐다”며 “물품 지원도 어머 워 선수들이 낡은 운동화로 훈련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광주 시민들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 개회식 텅 빈 600석은? 끝내 못한 북한 응원단 좌석

개회식이 열린 3일 오후,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 동쪽 오른쪽 아래 600석 가량의 좌석이 텅비어 눈길을 끌었다. 좌석이 모자라 입석 표까지 입장권이 모두 4만2000여장이 나온 상황에서 이른바 잘 보이는 ‘노른자’ 좌석이 단체로 빈 이유는 무엇일까.

개막식 내내 빈자리로 남아 있던 이 자리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윤장현 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 동쪽 588석을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좌석으로 지정하고 개회식이 끝나는 순간까지 북한의 참가를 기다렸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장인 윤 시장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막식 시작 이후에도 오른쪽 아래 단체석이 비어 있어 누구 자리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다”며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북한 선수들과 응원단 자리”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함께하고 싶었고, 함께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며 “우리는 한 핏줄 한민족이다. 분단 70년의 아픔을 넘어 통일의 노둑돌 놓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남겼다.

### 올림픽과 다른 점? 금메달 시상식 때 국가 연주 안해

지구촌 대학생들의 축제인 유니버시아드에서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달리 없는 것이 있다.

유니버시아드에서는 각 종목 순위에 따라 메달을 주는 것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과 같지만, 시상식에서 국가(國歌)가 연주되지 않는 게 다른 점이다.

대부분의 세계대회에서는 금·은·동메달을 각각 1등 선수의 국가가 울라가면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의 국가가 연주된다. 하지만, 유니버시아드 시상식에서는 국가 대신 ‘젊은이의 노래(Gaudeamus Igitur)’라는 제목의 국제대학스포츠포럼(FISU)의 공식 찬가가 나온다. 유니버시아드는 195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처음 열렸는데, 그전에는 민주주의 국가 중의 FISU와 사회주의 국가의 국제학생연맹(UIE)가 따로 대회를 열었다.

FISU는 이념 갈등을 없애고자 1961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회 대회부터 국가 대신 공식 찬가가 바꿨다.

FISU 찬가에는 유니버시아드가 기록을 위한 경쟁이 아닌 국경과 이념, 종교와 문화를 초월하는 지구촌 젊은이들의 화합 제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별취재단=김형호·백희준기자 khh@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 최고

금리는

#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 서양새마을금고